

서구, 공원을 ‘함께 노는 놀이터’로 만든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전래놀이 지도사 20명 참여...11월까지 5개 공원에서 20회 운영
제기차기·윷놀이부터 세계놀이까지...세대 잇는 ‘놀이 큐레이터’ 활약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동네 공원을 즐거운 놀이와 만남이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서구는 11월까지 마복근린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상무시민공원, 화정근린공원, 신암근린공원 등 5곳에서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놀이 체험을 넘어 함께 어울리고 이웃 간 교류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구가 올해 상반기 ‘K-전통놀이 큐레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한 전래놀이 지도사 20명이 현장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이끈다.

이 과정은 서구 평생교육 브랜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세큰대)’와 남부대학교가 연계해 마련했다. 팝업 놀이터에서는 제기차기,

활쏘기, 윷놀이, 고무줄놀이 등 추억의 전통놀이와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각 장소에서 네 차례씩 총 20회 진행하며 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참여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팝업 스탬프 북’을 선보이고 4회 모두 채우면 완주 메달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점차 사라지는 ‘함께 노는 문화’를 일상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아이들은 또래와 뛰어놀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부모 세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녀와 공유하면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

또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정원도시’의 공간적 가치를 콘텐츠

로 확장해 마을공원을 문화·교육·여가·주민자치가 어우러지는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원이 걷고 쉬는 곳을 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웃끼리 안부를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생활 속 공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통을 돕고 주민들이 공원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놀이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원 이용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북구, 20여 개 의료기관서 주치의제 본격 운영

만 50세 이상 북구 주민 누구나 가능

개인별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주치의제의 환자 등록이 지난달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격화에 올랐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일차의료기관 20개소에서 일제히 주치의제 참여자 모집을 개시했다.

주치의제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오는 2029년까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검진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 교육 ▲질병 및 약물 관리 ▲방문 진료 및 간호 ▲전문 의료기관 연계 ▲지역사회 보건·복지·돌봄 자원 지원 등 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북구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20개 의료기관 중 원하는 곳에 관리 대상자로 등록

하면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명단은 북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북구청 건강주치의추진단 또는 각 의료기관으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일상에서 밀접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치의제는 주민들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주민은 등록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의료진은 정기적인 상담과 건강 상태 확인을 통해 환자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 올바른 약물 복용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교육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의료기관과 연결해 진료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정관 기자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무안군

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무안으로 떠나는 여행..

대자연과의 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무안으로 여행을 즐겨요~~



나들이하기 좋은 곳... 무안으로 떠나요~~

- 검은비단 갯벌 인류와 공존하다
- 전국 최대규모 무안생태갯벌센터
- 박지모양 등대 보러오세요~
- 일출, 일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리포
-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 호담 항공우주전시관
-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
- 초의선사 탄생유적지

- 하늘과 땅, 바다 모두 볼게 물들다
- 낙조가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
- 바다와 바람에 온 몸을 맡긴다
- 윈드서핑의 최적지 흥통유원지
- 백련, 진흙 속에서 순백의 꽃을 피우다
-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명소





무안군